

석유화학, 올림픽이 반갑지 않다!

동양증권, 1개월간 석유화학제품 수입 감소 ... 자동차 연료구매도 급감

동양증권증권은 8월12일 베이징(Beijing) 올림픽이 아시아 정유와 석유화학업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8월 동안 비중을 축소할 것을 조언했다.

황규원 연구원은 “베이징올림픽 전후 1개월 동안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화학기업의 가동이 중단되고 트럭 수송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중국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수요가 줄고 있다”며 “차량용 연료 구매의 급감에 따른 마진 감소는 9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규원 연구원은 8월 순수화학과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비중축소가 바람직하지만 LG상사와 SKC 등 영업실적 개선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를 권했다.

또 “LG상사는 자원개발 성과에 따른 영업실적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SKC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영업실적 개선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입찰 공고 후 재매수를 권하며 “대한생명 상장으로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가치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2>